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2월 16일(금)

...(윤력 11월 23일)...

Пятница

16 декабря 2022г.

№ 48 (1201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새해 장식을 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이예식 기자 촬영)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사할린 방문

12월 12일(월) - 13일(화)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이자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가 출장차 사할린주를 방문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사할린주 방문 일정으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동행한 가운데 '우스페놉스키' 훈련소에 자원병과 동원병, 전투병 훈련 조직을 점검했다. 훈련소에서 전투훈련 조직을 동부군관구 군대의 임무 군단장 대행인 안드레이 그레츠키가 대령이 소개했다.

부총리는 지난 11월 말에 공개적으로 무인기 제조에 따른 작업장을 공개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지역 기업의 작업을 시찰하고, 고르니워즈두흐를 방문,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 마스터 플랜(기본이 되는 계획)의 실행 및 지역 교통 접근성 개발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한 가운데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 마스터 플랜의 실행에 관심을 기울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 및 극동의 다른 대규모 도시들의 개발을 결정하는 전략안은 마스터 플랜이다. 극동의 도시들의 마스터 플랜 개발에 따른 과제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 과제는 앞으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마스터 플랜 개발 실행도 과제로 남을 예정이다. 이는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극동의 도시들의 현대화와 재건축이다. 이는 대규모 작업으로 몇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유리 트루트네브가 지적했다.

도시 광역화 사명은 선진 기술을 가진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조성을 포함

하고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2025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의 전체 가스화 작업과 역동적으로 발전되는 석유가스산업을 전제조건으로 철도와 차량 통행으로 연결되는 항구와 공항 제반시설이 존재하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에는 고르니워즈두흐 선도개발구역의 일환으로 동일한 명칭의 스키 휴양지가 개발된다.

사할린주는 사회적 제반시설 건설과 1인당 주택 운용에 있어 가장 높은 지수를 가진 지역 중 하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의 첫 번째 일련의 주요 개발 과제는 신경계 클러스터들의 균형잡힌 배치, 고임금 일자리 창출, 도시 환경의 질적 개선, 새로운 주택단지 건설과 현대적 공공구역 조성이다.

주지사는 광역시 개발의 개정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석유·가스, 임업, 수산업, 농산업, 건축업, 5,200억 루블리 이상의 투자액이 투입되는 관광 및 물류 등 분야에 75개 이상의 투자기획이 2025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행으로 2,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교통 접근성에 대한 회의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새로운 활주로 건설과 코르사코프 항구개발, 해상운송 보조금 문제가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2023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새로운 활주로 건설 기획의 추가 재정에 대한 결정이 채택됐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활주로 건설에 36억 루블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 보도 자료에서)

국가적 핵심인재 주도 포럼 극동지역에 투자기획을 수행할 전문가 충분한가

12월 16일(금) 노동자원의 품질과 가용성에 대한 투자 상황 상태의 국내 순위 지표에 대해 연방극동관구 지역들과의 회의가 사할린에서 진행된다. 이 회의는 투자 전략청이 조성하는 국가 핵심인재 주도 포럼의 일환으로 러시아 노동 및 사회복지부와 사할린주 정부와 직업 및 훈련 개발청이 주최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행정자치단체장과 기업 연맹 위원 및 기업 대표들을 비롯해 러시아 노동·사회복지부의 전문관, 극동 및 북극개발부의 직원들이다.

"포럼의 주요 과제는 국가를 위한 유망하고 중대한 국가적 핵심인재 주도의 개념, 사할린으로 인재 영입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만드는 핵심인재 모델 설계이다.

논의를 위한 중요한 과제는 지역별 기업 주도의 인재 확보 성취도이다. 이는 사업가 관점에서 핵심 중 하나다. 반면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평균 인재확보 성취도가 감소했으나 극동연방관구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청년 전문인' 전략주도청의 율리야 한지나 부청장이 언급했다.

2022년 인재 확보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지닌 지역들의 국내 순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히브리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 사하공화국이 있다. 이 지역들의 중요성은 극동연방관구에서만 우수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평균치보다 높다. 회의에서는 극동 투자기획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과 실질적인 문제 탐구 및 지도자팀의 성공사례를 논의할 계획이다.

주두마, 사할린주 예산 첫 심의 통과

12월 13일(화) 주두마 의원들이 사할린주 정부가 발표한 2023년과 계획기간인 2024년과 2025년의 주요 재정안 기획에 동의했다.

예산안은 러시아 연방과 사할린주 사회경제 발전의 예상 변수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2023년 총 수입액은 1,328억 루블리이며, 계획기간인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167억 루블리와 1,152억 루블리로 주 정부는 주 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예년과 같이 사회적 명목으로 지역 주민 지원과 지역 발전에 따른 의무 이행이 보장된다.

"지역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2023년에는 520억 루블리에 이르며, 도시 지구들의 예산 확보의 평준화를 위해 보조금으로 80억 루블리 이상이 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지역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다."고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총재가 말했다. 예산 지출의 절반은 사회적 프로그램 실행으로 배정됐고, 사할린주의 의료 발전을 위한 지출액은 227억 루블리, 교육을 위해 220억 루블리, 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190억 루블리가 배정됐으며, 노후주택으로부터 주민 이주에 87억 루블리 이상이 배정됐다. 예산 투자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이를 목적으로 2023년에는 262억 루블리 배정,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56억 루블리와 129억 루블리가 배정된다.

이 자금들은 경제 및 사회 분야의 109개 시설 건설과 개건에 투입되는데 그중 학교, 유치원, 병원이 포함된다. 이 분야의 목록 중 주요 항목으로 주택 공공사업 시설들도 차지하고 있다. 주의회 위원회들이 예산안 기획을 승인했다고 주두마 예산 및 세제 위원회 위원장인 나탈리아 자하르추크가 강조했다.

의회 회계 및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요 재정 법안의 항목들은 러시아 연방 예산체계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12월 20일(화) 주두마에서 예산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곧 마무리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다자녀 가구 지원에 연방 정부 3억6천만 루블리 이상 배정

러시아 연방 정부가 다자녀 가구 추가지원을 배정했다. 지원금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비비에서 출자되며, 이에 대한 법안에 연방 정부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승인했다.

연방 정부 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다자녀 가구 지원에 추가지원금으로 3억6천250만 루블리가 배정됐다. 정부가 조달하는 월 지원금은 최저생활비와 같으며 매월 다자녀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1만4500루블리로 이는 지역 계수에 따라 추가로 지수가 연동된다.

셋째 자녀 출산 후 또는 그 다음 자녀가 3세가 되기까지 지원금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 사이트에 '셋째 자녀 출산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저소득층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3억6천250만 루블리 추가 배정에 대한 조치에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서명했다.'고 공지됐다.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 13대의 새로운 통학버스 운행

주 및 연방 자금으로 11개 지방을 위한 통학버스가 확보된 가운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방의 대표들에게 새로운 통학버스의 열쇠를 인계했다. 새로운 통학버스는 22인승으로 높은 운행력을 갖고 있으며, 가속방지 특수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비상벨도 설치돼 있다. 13대 통학버스 중 9대는 지방 학교로 보내져 학생들이 이 교통편으로 통학하게 된다.

8대의 통학버스는 주 예산으로 올해 확보되었고, 5대는 연방 자금으로 확보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년까지 러시아 학교들의 통학버스 주차시설도 전체 새로이 건설될 전망이다.

안산 고향 마을: 사할린 동포가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

11월 말-12월 초 한국을 다녀가며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안산 고향마을 노인회 사무실을 찾아 주훈춘 회장(1945년 생)을 만났다.

필자는 주훈춘 회장에게서 고향마을 거주자들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 현재 고향마을에서 75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90세이상 할머니·할아버지 31명 중 98세의 어르신은 3분이십니다. 사실 2000년부터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596명이나 됩니다.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거의 70%가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십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웃사람들이 서로 매일 안부 묻기 운동도 합니다. 안산 고향마을은 사할린동포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이고 그리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역이 옆에 있어서 전에 다른 지역으로 귀국한 동포 약 80명이 우리 고향마을로 이사오고 싶어합니다.

놀이를 즐기는 어르신들을 위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운영되고 있고, 체력 단련실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 방들을 수리하고 새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안산시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경제가 나빠져 전에 후원을 하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지원을 거의 끊었습니다.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새 후원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사할린동포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고향마을에 205명이 새로 입주했습니다. 특별법이 미흡한 점이 있어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 영주귀국 대상을 선정을 하고 이들이 귀국을 했을 때 일부 지원자들이 서류 관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성이 일치 않고 틀리게 적혀 있거나 생일 날짜가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영주귀국하면서 이름도 완전히 바꾸고 (예 호적에 적혀 있는대로), 생일, 태어난 해 등 -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안산시에

안산 고향마을은 한일 정상 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사할린 한인 전용 500세대 아파트이다.

영주 귀국 시범 사업을 통하여 한국으로 귀환하는 사할린 한인들의 거주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건설 경비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경기도 안산시에 부지를 제공하여 만들었다.

1999년에 준공되어 2000년 2월에 6월말까지 사할린동포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였다. 그 당시 약 890명의 사할린 한인 1세대에게 고향마을이 새 보금자리가 되었다.

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지금은 이런 서류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적십자사, 외교부, 정부 등에 글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 이번 호 3면에 게재 - 기자주)

이날 주훈춘 회장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노인회관 시설도 돌아보고 어르신들의 모습이 반영된 많은 사진도 보았다.

20여년 전에 귀국하신 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돌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러시아 제재로 인해 몇 년간 사할린과 한국을 잘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이산의 아픔이 다시 느껴진다.
(안산-사할린,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12월 9일 특수군사작전의 병사들에게 사할린 주민들이 보낸 의복과 의약품 보급

12월 9일 사할린의 주민들로부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샤흐초르스크 지역의 주민들과 사할린의 동원병들에게 의약품에서부터 도서에 이르기까지 정기적 다양한 구호물품이 전달됐다.

우선 구호물품 배송을 위해 세제, 의약품, 식품류로 구분했다. 이외에도 물품 목록에는 따뜻한 속옷, 양말, 구두 깔판, 장갑, 신발, 문구류, 책, 휴지, 화장지, 기저귀, 종이수건, 옷감, 물휴지, 장난감, 일회용 식기, 개인적 및 의료적 주민 보호용품과 유아 식품이 포함돼 있다.

상위 모든 목록들은 병사들을 위한 물품과 샤흐초르스크 시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물품으로 구분해 배분된다.

돈바스에 도착한 구호물품은 두 개 기획의 일환으로 모집됐다. 첫째 기획 '동참'은 병사들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둘째 기획 '동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샤흐초르스크시와 지역의 주민 지원과 연관돼 있다.

Одежду и медикаменты от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олучили военные на СВО 9 декабря

Очередную партию различной помощи – от медицинских препаратов до книг получили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сахалинцы, а также жители Шахтерского района в ДНР от неравнодушных сахалинцев 9 декабря.

Больше всего мест в отправке помощи выделили под бытовую химию, медикаменты и продукты. Кроме того, в список вошли термобелье, носки и стельки, перчатки, обувь, канцелярия, книги, туалетная бумага, салфетки, подгузники, бумажные полотенца, текстиль, влажные салфетки, игрушки, одноразовая посуда, комплект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и гражданской защиты и детское питание.

Все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ое должны разделить. Что-то пойдет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а что-то – для жителей города Шахтёрск и Шахтёр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бывший на Донбасс груз помощи собрали в рам-

ках двух проектов. Первый – это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который нацелен на помощь именн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Второй –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помочь жителям города Шахтёрск и Шахтёрского района.

사할린주, 새해맞이로 가장 특별한 장소 상위 4위에 올라

새해맞이를 위한 특별한 장소 순위에 사할린주가 오른 가운데 모스크바 '리아모'잡지에 따르면 사할린주가 상위 4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새해 명절에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젠프 브 고스피루'팀은사할린의 비경과 곳곳의 색다른 날씨의 다양함으로 놀라움을 안겨주는 사할린으로 돈을 아끼지 말고 떠날 것을 권하고 있다. 사할린 북쪽의 눈보라와 풍설, 남쪽 일본해 난류의 온기로 축축한 안개, 푸른 이끼바위 위에 얼어붙은 폭포, 바람으로 유리잔의 음울처럼 울리는 얼어붙은 대나무 가지.'라고 묘사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사진 촬영을 위한 아름다운 원근 배경과 초현실적인 자연경관, 변화무쌍한 겨울 빛깔을 강조했다. 기사 작성자는 돈이 아깝지 않을 만한 곳임을 강조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2일 사이에 사할린으로 떠나 여행해보길 권했다.

이 시기에 모스크바에서 사할린행 항공권의 가격은 3만 루블리 정도이고, 다른 날에는 가격이 높아진다.

상위 순위에는 사할린을 비롯해 쉼레게쉬, 튜멘, 칼리닌 그라드, '에르가키' 자연공원, 노워시비리스크, 카렐리아, 바이칼이 올랐다.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занял 4-е место в топе самых необычных мест для встречи Нового год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ключили в рейтинг необычных мест для встреч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версии столичного журнала «РИАМО», Сахалин разместился на 4 строчке топа.

– Кому хочется приключений н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команда «Едем-в-Гости.ру» рекомендует не пожалеть денег и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который поражает не только своими невероятными пейзажами,

но и их разнообразием –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Сахалина даже климат разный. На севере – выюги и метели, а на омываемом теплым Японским морем юге – влажные туманы, застывшие водопады на замшелых скалах и обледеневшие стебли бамбука, которые звенят на ветру, словно стеклянные, – пишет издание.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отметили прекрасные ракурсы для фото, сюрреалистичную природу, переменчивый зимний свет. Денег жалеть не стоит, подчеркнул автор статьи и посоветовал прилететь сюда в промежутке между 27 декабря 2022 года и 2 января 2023 года. Тогда цена перелета из Москвы составит всег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другие дни выйдет дороже.

Кроме Сахалина, в рейтинг попали Шерегеш, Тюмень, Калининград, природный парк «Ергаки», Новосибирск, Карелия и Байкал.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74%가 새해를 집에서 맞을 예정

'슈퍼잡(SuperJob)' 분석가들이 제공한 자료 따르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74%가 집에서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중요한 새해 전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4%가 친지를 방문하거나, 다른 도시로 떠날 예정이고, 1%는 개별 별장이나 지방으로 떠나고, 12%는 홀로 밤을 보낼 계획이라고 집계했다. 설문 응답자8%가 12월 31일은 1월 1일을 위해 활동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남성 13%가 명절을 직장에서 보내는 데 더 많이 동의하고, 여성은 2%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74%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отметят Новый год дома

Новый год дома отметят 74%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ят аналитики SuperJob.

Эксперты подсчитали, что в главную ночь года еще 4%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правятся в гости, столько же – уедут в другой город. 1% поедут на дачу или в деревню, а 12% проведут ночь в одиночестве.

Работать 31 декабря на 1 января будут 8% опрошенных. В целом, провести праздник на работе чаще соглашаются мужчины - 13%, и всего лишь 2% женщин.

(8면에 계속)

삿포로에서 사할린 출신 한인, 일본인, 아이누 등 관한 연구 발표

12월 10일과 11일 홋카이도대학에서 "접경지역에서 위기사대의 지역정책성과 교류"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열렸다. 일본, 러시아, 한국 등에서 참가한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위기사대의 지역 연구", "위기사대의 지역활동", "위기 시대의 러시아어 교육, 언어 및 정체성"이란 소주제로 발표들이 이어졌다.

사할린 한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홋카이도대학에서 연구중인 이준영 박사가 "사할린 한인 역사 기억 계승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였고,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이 "사할린 동포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사할린 한인 출신의 텐 잔나(정영순)박사는 "한국의 러시아어 문화 · 교육 프로젝트 - 현대의 도전과 그 해결 방법"을 발표했다.

이준영 박사는 1910~20년대 사할린 한인 이주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홋카이도대학에서 사할린 한인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를 진행중이다. 그는 발표를 통해 기존 사할린 한인 연구가 강제동원문제로 집중되어 있는 점을 문제제기 하면서 강제동원 이 전 시기의 사할린 공간이 한인에게 어떤 곳이었나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였다. 특히 우글레고르스크와 포로나이스크 지역은 한인촌이 형성될 만큼 많은 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인들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는 사할린 한인 전체의 역사를 조망하는데 의미가 있고 사할린 한인사의 연구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상구 사무국장은 사할린 한인 문제 중 귀환문제를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1988년 이전의 귀환과정과 그 이후 한일 양국 정부의 영주귀국사업, 한국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88년이전 귀환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태귀환재일한국인회"가 펼친 일본에서 귀환운동을 강조하였고, 1990년 한국정부의 영주귀국 업무처리 지침에서부터 2020년 사할린 동포법까지 영주귀국 대상의 변화를 보면서 사할린 한인의 이동, "귀환의 권리"는 위기사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위기였음을 주장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의 특징은 킨, 일본의 사할린협회, 화태 아이누 2세 등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만나며 교류를 했다는 점이다. 활동가들의 현장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활동가들과 연구자 모두가 새로운 정보들을 얻고, 앞으로의 활동과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본사 기자)

재외동포재단, 연말연시 계기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위문품 전달

재 외 동 포 재 단 (이 사장 김성곤)은 연말을 맞아 전국 30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3,000여 명의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위문품(영양제와 생필품 세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 김성곤 이사장과 직원들은 15일 안산 고향마을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를 방문해 동포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연말연시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거주 여건 등에 대한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사할린 동포분들을 위한 저희의 작은 선물이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고, 안산 고향마을 주훈춘 회장은 "추운 겨울, 훈훈한 마음을 나눠주심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정이 담긴 위문품을 사할린 동포분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할린 동포들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돌아왔으며, 현재 서울과 인천, 안산, 부산 등 30여 지역에 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왼쪽으로부터: 최상구 사무국장, 사이토 히로미(일본 사할린협회), 다자와 모리 엔치위(사할린 아이누 2세), 이도 이리나,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박사, 정영순 박사, 이준영 박사.,

청 원 서

존경하는 윤석열대통령님!

"다시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기치 아래 강한나라 건설에 혼신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해 올립니다. 저는 사할린동포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고향마을사할린동포회장 주훈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연행되어 술한 고통과 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였던 분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국민들은 1946년 약32만 명을 일본으로 영주 귀국시켰으나, 우리 한인들은 그대로 사할린에 방치시켰습니다.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우리의 부모들을 태평양전쟁의 총알받이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 국민은 제외하고 자국민들만 영주귀국 시킨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할린 동포는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으로 사할린 남단 코르사코프시 항구에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배에 탔던 사할린동포들은 소련군의 진격으로 인해 고향으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서 목 놓아 울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망향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위령탑만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동안 6·25전쟁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조국 강산을 부국강병으로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사할린에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은 높아졌었습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 사할린 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법 제정으로 아직도 영주 귀국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이미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의 직계비속이 영주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직계비속이 영주 귀국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녀들을 사할린에 두고 영주 귀국하다 보니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자손들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는 1세는 물론 2세까지도 국적 판정으로 국적을 얻게 되어 무척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랜 세월 살다 보니 문화는 물론 언어에 한계가 있어 국적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하여 귀화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국적을 받게 되어 아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적 판정을 신청하는 동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영주귀국 대상 350명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법이 시행과 함께 법무부에서 국적법에 있는 국적 판정제도를 확대해 주어서 그동안은 사할린 동포 1세에만 국적 판정을 해주었던 것을 사할린 동포의 척박한 삶과 2세가 겪었을 교육이나 타국에서의 차별 등을 공감하고 포용하는 정책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아닌 사할린 동포 2세에게도 국적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과 같이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고 국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할린 동포들이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살아가는 데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적 판정을 받아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생활도 빠르게 적응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적 판정을 받으면 한국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받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고 한국인으로서 마음가짐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한국인의 혈통이 이어졌다고 법무부가 2세까지 판정을 해주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국적 판정을 받게 되면 귀화 시험도 보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게 되어 더욱더 사할린 동포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적 판정을 신청하는 동포들의 숫자가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연행되어 술한 고통과 설움 속에 살다가 그리웠던 고국 대한민국에 영주 귀

국하게 된 것은 신의 축복입니다. 그동안 영주귀국사업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와 합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부는 영주귀국 총괄, 국토부는 거주지를 마련하고, 법무부는 국적 판정을,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받을 동등 구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국적을 받긴 받았는데 가족관계가 별개로 작성되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관계가 연계되지 못하고 제각각으로 기재되어 통보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연계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반영 부탁 올립니다.

1. 법무부에 확인하여 본 바, 국적 판정자가 제출한 국적관련 러시아 서류의 본인과 가족의 서명 자필 통보서 또는 기존에 있는 기본증명서(호적 등)상 성명이 다르면 모두 대법원에서 반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2. 사할린동포들은 한국에 호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호적에는 정말자로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정말순으로 살아서 여권을 받아서 왔는데 정말순과 그 자녀와의 관계 입증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혼인과 이혼으로 성이 바뀌고, 영주귀국전과 후가 이름, 철자, 생년월일 등이 다르게 기재되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주귀국을 했다면 외교부가 책임을 지고 그분들의 가족이고 함께 왔다고 증명이나 확인을 해서 그 사할린동포가 국적판정을 받을 때 가족관계를 잘 기입하여 대법원에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3. 대법원은 사할린동포의 한과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시어 인도적인 입장에서 가족관계를 만들어주시고 가족관계를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 법무부는 외교부에서 영주귀국자의 가족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성명이 바뀐 증명서나 과거의 제적등본 등을 가지고 와서 최대한 서류를 가져다준다면 대법원으로 통보를 해준다고 하오니, 대법원에서 한글자 틀리다고 하여 무조건 반려하는 행정을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동포는 제출된 한글명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는데 사할린동포는 어떤 곳은 한글명으로 해주고 어떤 곳은 원음으로 해주고 있어 너무도 불편합니다. 사할린동포도 한글명으로 가족관계 통보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외교부에서 영주귀국업무를 총괄하여 영주귀국대상자를 확정하게 될 때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를 대법원에 통보하여 정확한 가족관계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를 제대로 등재해야 하위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영주귀국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면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가족관계 증명이 등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러시아의 행정체계는 중국과도 다르고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행정을 하기때문에 우리 정서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정부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사할린동포가 유용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사할린동포들의 한 맺힌 고난의 역사를 다시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같은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기원합니다. 병들고 늙은 사할린동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오며, 외교부와 대법원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할린동포들의 가족관계증명이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 올립니다. 아무쪼록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순조롭기를 기원하며 건강과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고향마을 사할린동포회장 주훈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олучили 14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тхэквондо

Сахалин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 ученики спорт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Кубк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10-11 дека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стоялись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и более 400 спортсмен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выступили в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юноши-девушки, juniors-юниорки, а также мужчины-женщи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спортшколу представля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тренеров Виталия Чана и Дениса Ким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убк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14 золотых, 4 серебряных и 5 бронзовых наград. В общем зачете островная команда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Участники с Сахалина входят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России, становятся призерами чемпионатов и первенств страны, подчеркнул директор 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Алексей Божен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в надежных руках и поэтому добиваются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се тхэквондисты,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Владивосток, вернулись с медалями. Мы завершаем год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готовимся к новым свершениям и результатам», – приводит слова Боженко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ктриса Мун Гын Ён – первый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имени Кан Су Ён

Актриса и режиссёр Мун Гын Ён (문근영) удостоена специальной премии имени Кан Су Ён. Данная премия учреждена в этом году ассоциацией женщин-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с целью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актрисы Кан Су Ён (강수연), скончавшейся в мае 2022 года. Кан Су Ён является известной личностью в мире кино. Она начала актёрскую карьеру в 1975 году в возрасте девяти лет, за последние 47 лет вышли десятки фильмов и сериалов с её участием. Премия имени Кан Су Ён вручается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в том числе за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в актёрском искусстве, режиссуре и других сферах кино.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ялась 15 декабря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женщин-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여성영화인축제) 2022 года. Актриса Мун Гын Ён дебютировала на экране в 1999 году, снявшись в фильме «На дороге» (길 위에서). Среди работ с её участием заслуживают внимания киноленты «Молодая невеста» (어린 신부), Трон (사도) и «Стеклянный сад» (유리정원).

KBS World

Роман Ли Чжон Мёна «Разбитое лето» - лучший триллер 2022 года

Ром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Ли Чжон Мёна «Разбитое лето» (부서진 여름 / Broken Summer) назван лучши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в жанре триллер 2022 года по версии газеты New York Times. Вместе с ним в список вошли ещё пять книг, в том числе, произведения Джанис Халлет The Appeal и Адама Хамди The Other Side of Night. Роман «Разбитое лето» издан в РК в мае 2021 года. Он раскрывает тему лжи, недопонимания и их разрушительного влияния на примере судеб трёх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Переведённая версия книги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издательством Amazon Crossing и рекомендована к прочтению газетой New York Times. Книга собрала комментарии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айта Amazon.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Симпозиум в Саппоро: О мигр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многом другом

Полтора часа на самолете или 4 часа вплавь – это много или мало? Сегодня, несмотря на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близость, эти два острова в Тихом океане – Хоккайдо и Сахалин – стали недостижимы друг для друга. И в прямом, и в переносном смысле. А ведь когда-то об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 прошлое навечно переплело судьбы их народов – корейцев, японцев, айну.

11 и 12 декабря 2022 года в г. Саппоро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Хоккайдо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под назва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мен в период кризиса», посвящен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миграц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и лок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 Хоккайдо, Северные территории/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перио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ризисов. Участниками симпозиума стали не только ученые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но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Япо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оссии, Киргизстана, Испании.

Доклад Пайчадзе Светланы (Университет Хоккайдо) был посвящен многократной смене границ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иводило к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как добровольной, так и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Последний передел границ и последовавшая за ним холодная война привели к насильственному переезду в Японию карафутских айнов и к не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для корейцев и части япо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чень проникновенным б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Таздава Мамору о соврем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карафутских (японское название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айну энчу на Хоккайдо, которые в отличие от местных айну не признаны коренным народом и не имеют особых прав, в связи с чем они оказались лишенными вся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как репатрианты (нет права одновременных поездок на Сахалин, остро стоит проблема перевоза и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из Японии на Сахалин). А вот судьба к сахалинским японцам, возвращающимся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казалась более благосклонной, о чем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японцев Хироми Сайтоу.

Но меня, сахалинскую кореянку, конеч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Исторический экскурс в далекое прошлое, до начала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Японией (до 1939 года), был сделан Ли Джунёном, сотруднико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ккайдо. В силу отсутствия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источников этот период недостаточно освещен в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ке, но приведен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крыли новую страницу в их истории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далекие земли.

О соврем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роблем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епатриацией



ей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б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Чве Сангу, котор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щищает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частности, на основании получен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мониторинга их положения, KIN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движении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е только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о и исключенных из объектов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возвращения сберегательных накоплений по старым вкладам и страховым выплатам при условии сохранности банковских книжек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На август 2022 года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ереехало 4.742 человека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 3.810 человек, 2 поколение – 932 человека), для 334 из них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Специальному по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ступившим в силу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я рассказала про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в Корею, причины их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сред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и пер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в контексте полилингв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Японии рассказали Сатико Ёкон (г. Осака), Анна Савиных (г. Саппоро), Елена Такеда (г. Тояма). Несмотря на спад популярност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мире, для его носителей он является материнским языком,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культуры и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А вечером в японском городе Саппоро началась легкая метель: пушистые и мягкие хлопья снега под музыку ветра кружились в воздухе и оседали на деревьях и дорогах. Все в точности, как это бывает на Сахалине. А значит и здесь завтра засветит яркое солнце. Как и на Сахалине. Ведь мы так близко, хоть и далеко.

Тен Жанн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КРК

Зима надежды нашей

Москва, 10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В Дом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комиссии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В нынешний состав входят около 40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интервью ИА РУСКОР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Ли Чулсу сказал,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в уходящем году. Свое видение ми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ысказ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исей Ким, президент РОО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Юлия Пискулова, профессор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АН) Ким Ен Ун,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медиагруппы «Россий-

ские корейцы» Валентин Чен, секретарь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Александр Пак и другие.

В наступающем году эта повестка, как минимум, будет еще дважды вынесена в повестку совета. Планируем собрать м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консультантов в возрасте до 40 лет, мало знакомых с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Если получится, в оставшийся срок м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в долж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рассмотрю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местного сбора мнений об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и со стороны членов москов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Бомминрён» (включая консуль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м провести панельные дискуссии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 числ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



Ли Чулсу

же студентов факультет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оссийск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ключая институт короля Седжона). Основой для дискуссии будет вопрос «Зачем России нужен мирный единый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остараемся, чтобы наша деятельность была актуальной и полезной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част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б отставке Ли Сан Мина

11 декабр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большинство мест в котором принадлежит оппозиции, проголосовало за отставку Ли Сан Мина с должности минист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ставку поддержали 182 из 183 участников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Один голос признан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 Депутаты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оторая выступила против предложения об отставке министра, покинули зал заседаний до начала голосования. Дл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необходима поддержка не менее чем 150 депутатов.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внесла предложение об отставке Ли Сан Мина 8 декабр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арламентской процедурой, голосование должно состояться в течение 72 часов после внесения предложения. Оппозиция возлагает на Ли Сан Мин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о, что возглавляемое им министерство, которое осуществляет руководство полицией и другими экстренными службами, не смогло предотвратить траг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инцидента в сеульском районе Итхэвон. В результате давки, которая возникла там вечером 29 октября, погибли 158 человек. Ли Сан Мин – второй министр в нынешн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за отставку которо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о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нициировала отставку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ак Чина из-за ряда неудач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и США. Тогд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клонил отставк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 не согласится и с отставкой Ли Сан Мина.

Бивалентная вакцина против COVID-19 становится доступной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 РК расширяются рамки вакцинации населения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начиная с 12 декабря, подростки старше 12 лет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бивалентную вакцину Pfizer, адаптированную к подвариантам Омикрон BA.1, BA.4 и BA.5.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лица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7 лет могу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записаться на вакцинацию. Одновременно доступна вакцинация оставшимися дозами без записи.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примерно две трети населения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7 лет прошли первичную вакцинацию, но только 11,5% эт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прошли ревакцинацию.

В РК открываются горнолыжные комплексы и санные трассы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зимы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родолжают открываться горнолыжные комплексы. Со 2 декабря открыты Yongruong и Phoenix Pyeongchang. Работают подъемники, организован прокат снаряжения, открыты помещения для обогрева. До конца декабря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для любителей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все 30 склонов в комплексе Yongruong и 18 в комплексе Phoenix Pyeongchang, что является максималь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с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18 года. С 3 декабря открыты Pyeongchang Alpensia и Hongcheon Vivaldi Park, а 9 декабря открылись ещё четыре горнолыжных комплекс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любителей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принимают все восемь комплексов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Лыжный сезон – первый после отмены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оэтому на горных склонах так много лыжников. Сезон продлится до конца февраля будущего года. Между тем, насладиться зимними видами спорта можно, не уезжая из Сеула. По сообщению столичных властей, в двух парках на берегах реки Ханган с 23 декабря по 12 февраля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анные трассы. Трасса в парке «Туксом Ханган»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осле трё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ызванного пандемией COVID-19. Санная трасса в парке «Чамвон Ханган» в этом году создана впервые. Отдельные невысокие снежные горк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шести лет. Санные трассы открыты ежедневно с 9 до 17 часов, но в случае плохой погоды время работы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о. Для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трёх лет вход бесплатный, но им запрещено катание на санках без сопровождения родителей из соображен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и горнолыж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санных трасс убедительно просят отдыхающих соблюдать максимальную осторожность, не допуская переохлаждения и помня о трёхлетнем перерыве в практике катания. Обязательно ношение защит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шлемов.

Два сериала из РК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премию Critics Choice Awards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Станный адвокат У Ён У» и «Пачинко»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американскую кинопремию Critics Choice Awards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сериал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Об этом 6 декабря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Сериал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оминируются на премию Critics Choice Awards во второй раз. Ранее такой чести был удостоен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режиссёра Хван Дон Хёка. 28-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й состоитс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15 января 2023 года.

(RKI)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будет активнее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рузов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СМП), проходящий вдоль арктиче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будет все более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различных груз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Такую точку зрения высказали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в ходе прошедшей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Неделя арк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85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планеты проживают в Северном полушарии, и пути через Арктику соединяют этих людей...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перспективе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вряд ли может полноценно соперничать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путями доставки грузов, которые идут через Суэцкий и Панамский каналы, слишком разные условия и объёмы. Однако я уверен, что СМП сможет хорошо дополнять эти пути, послужив активизации и увеличению объёмов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Арк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Мадс Квист Фредериксен.

Вместе с тем эксперт указал, чт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ого и безопасного судоходства по СМП необходимы крупные инвестиции. "Согласно оценкам, в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рктических районов необходимо вложить не менее 1 тр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в течение 15 лет... Кроме 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оздание структуры сбора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судов. До сих пор некоторые районы Аркт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устыню" – очень мало данных! Это осложняет безопасный и стабильный проход судов по СМП", – подчеркнул норвежский специалист.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НИИ энергетики и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Сон Гю подробно остановился на сложившейся сейчас ситуации, отметив, что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к сожалению, негативно сказался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Арктике. "Страны Запада ввели масштабные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В этой связи очевидно, что Россия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 перевозку грузов и ресурсов по СМП,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торого проходит вдоль ее побережья,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анного маршрута.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нефть, газ, уголь будет теперь перенаправляться из Европы в Азию – в Индию, Китай, другие страны. В этой связи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ужесточение конкуренции поставщиков на рынках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Юго-Восточной и Юго-Западной

Азии", – отметил Ли.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политика США, 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выстроить отдельные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минув Китай и Россию, закончится.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США продолжат свой курс, привлекая союзников, но это не может быть так всегда.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это закончится, и мы вернемся к прежним формам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 сказал он.

По мн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комитета арк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Кореи Ким Хён Су, активные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новых видов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х с точки зрения экологии судов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утся на задействовании СМП для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льших проблем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МП является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что любая авария или вообще активное прохождение судов в Арктике нанесет сильный урон хрупкой экологии этого региона. Но успехи по части создания судов, у которых повышенные стандарты по части экологии, позволяют нам надеяться на решение этой проблемы.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спокой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еревозку грузов по морям Арктическо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Ким. Он добавил,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блюдается стабильное увеличение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по СМП. "Данный маршрут может стать хорошим страховочным вариантом и на случай тех аварий, которую мы наблюдали, когда в Суэцком канале встало судно, перекрыв движение этой важнейшей миров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артерии. Часть грузов можно будет перенаправить через Арктику". – указал корейский специалист.

Точку зрения о перспективност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поддержал и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SME) Чхве Чжун Хё. Подробно описав т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нноваци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активно внедряются на новых судах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Чхве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позволя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перевозку грузов по СМП в те месяцы и при тех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ранее считалось невозможным обеспечивать движение судов. "У нас уже есть рекорд, когда СПГ-танкер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смог пройти весь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и доставить ресурсы в Китай всего лишь за девять дней. При этом,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ям СМИ, танкер прошел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без сопровождения ледокола", – указал он.

Олег Кирьянов(Пусан, РГ)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изнание поэтессы

Сеул, 12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оэтесса Ким Хе Сун была назва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исателем» Королевским литературным обществом (RSL), базирующимся в Лондоне. Влиятельная фигура на сцене современной поэз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Ким была включена в список из 12 авторов, объявленный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RSL.

Другие авторы в списке — лауреат поэтической премии Гриффина канадская поэтесса Энн Карсон, француз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Мариза Конде, зимбабвий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Цици Дамгарембга, немецкая дет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Корнелия Функе, американские романисты Мэри Гайтскилл и Саидия Хартман, француз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Фаиза Гуэн, япон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Йоко Огава, палестинский юрист и писатель Раджа Шехаде, колумбийский писатель и переводчик Хуан Габриэль Васкес и сирийский писатель и журналист Самар Язбек.

Недавно награжденные писатели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первому списку лауреатов премии RSL International Writers, которые были объявлены в ноябре 2021 года.

Среди первых 12 писателей — поэт и переводчик Чхве Дон Ми, получивший стипендию Фонда Макатура в 2021 году, и француз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Анни Эрно, получившая в этом году Нобелевскую премию по литературе.

Программ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исателей RSL была запущена в 2020 году в рамках «RSL 200», пятилетнего фестиваля с серией крупных новых инициатив.

Программа ежегодно приглашает писателей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RSL, чтобы признать вклад писателей со всего мира в англоязычную литературу, «отмечая силу литературы преодолевать границы и объединять людей».

Ким родилась в Ульджине,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в 1955 году, дебютировала как поэтесса в 1979 году. Ее произведения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о всем мир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и немецком языках.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Ким стала первой азиатской женщиной, получившей Канадскую поэтическую премию Гриффина в 2019 году за «Автобиографию смерти» (2016).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проекту бюджета на 2023 год сохраняются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из-за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разногласий не смогли утвердить бюджет на 2023 финансовый год в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законом сроки. Несмотря н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сделать это до 15 декабря, подвижек в устранении спорных моментов пока нет. Крупнейш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меющая большинство мес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может принять бюджет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есл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не пойдёт на уступки. Оппозиция намерена утвердить бюджет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15 декабря, если договориться с правящей партией не удастся. Между тем, в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заявляют, что такой шаг станет «беспрецедент-

ным актом насилия». С раннего утра 14 дека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ртий продолжили обмен критическими заявлениями.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считает, что призывы оппозиции снизить ставку подоходного налога носят показ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повысило налоги, а теперь оппозиция настаивает на их незначительном снижении. 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ритикуют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призвавшего снизить корпоративный налог, который и вызвал главные споры сторон. Переговоры лидеров фракций, которые попытались урегулировать разногласия, завершились безрезультатно.

KBS World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выбрать, какие дворы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 2023 году

Продолжится реализац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капитально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Всего в 2023 году за счет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планиру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и благоустроить около 30 дворов.

Дворы, которые преобразя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ыберут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ервым этапом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танет онлайн-опрос жителей,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15 по 25 декабр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В результате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адресный перечень дворов, планируемых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йдет на платформе обратной связи <https://pos.gosuslugi.ru/>. На обновление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209 млн рубле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через механиз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 Приглашаю жителей домов, где требуе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воров,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Результат будет зависеть только от людей. Чем больше жителей конкретного дома оставят свой голос, тем больше шансов добиться ремонта,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о дворах, которые победят на голосовании, отремонтируют тротуары и проезды, создадут условия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высадят кустарники и деревья, установят систему освещения. Там, где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явится спортив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игровые площадки.

Помимо капитальных работ,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ыполнили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В 2022-ом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почти тысячу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В этом году в нашем дворе сделали только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Видим изменения в соседних дворах и тоже мечтаем попасть в програм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Буду призывать соседей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 рассказала южносахалинка Людмила Федорова.

Проект «1000 дворов» реализуетс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новые доступ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отдыха рядом с домом,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 2022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84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провёл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у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вестку вошли вопрос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Корсаков,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меет специфику, а значит, вопросы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имеют первоочередное значени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омфорт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Достаточно сказать только, что ежегодно по морю на Сахалин с материка доставляется более 3 млн тонн грузов.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уществующая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была построена в 1964 году под тип самолетов ИЛ-18 и не рассчитана на высокую сейсмичность. В 2019 году было произведено экспер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подтверждено крит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полосы. Давайте разберемся, как идёт работа по её переустройству», — открыл совещание Юрий Трутнев.

Услугами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95% пассажиров, прибывающих на острова. Но существующая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по эксплуатацион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стоянию полосы исчерпала свой ресурс, поэтому был поднят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азработана проектно-сме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началась укладка первого бетона.

Новая «взлётка» обеспечит прием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типов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и повыс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летов. Благодаря повышению категории аэродрома сниз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отложенных рейсов из-за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Ввести полосу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4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в главной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удет введё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ый аэровокз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до 5 млн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проекта в 2023 году. Как отмет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Минтранс России планирует выделить ещё 3,6 млрд рубл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транспортном совещании был поднят вопрос модернизации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Корсаков, в том числе его включение в план развития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На совещании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морской гавани. Минтранс России в 2023 году планирует выделить на эти цели 1 млрд рублей.

Юрий Трутнев поручил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е провести экспертизу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на объекты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без подтвержден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что позволит быстрее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ам. Кроме того, вице-премьер дал поручение Минфину России, Минтрансу России и Минстрою России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 переносе сроков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азвитию порта Корсаков с 2026-2028 гг. на 2023-2025 гг.

«В протоколе закрепим поручение о том, что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а примет проект на дальнейшую работу. А Минтранс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аправит 1 млрд рублей, чтобы эта работа продолжалась», — замет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Ещё один вопрос касал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вво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аромов для переправы Ванино—Холмск, соединяющей Сахалин с материком. На Амурско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м заводе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строятся два современны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паромов: «Александр Деев» и «Василий Ощепков». Каждый из них сможет перевозить 200 пассажиров, до 32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вагонов и 12 груз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Высокий ледовый класс позволит работать на линии круглый год.

Напомним, в сентябре на новом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автомобильном пароме «Александр Деев»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дня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в которой по видеосвяз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Минтрансом Росс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лена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ая модель эксплуатации паромов.

По итогам обсуждения Юрий Трутнев поручил Минтрансу России, Минфину России,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ь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убсидированию затрат, связанных с эксплуатацией паромов.

«Первое судно в финальной стад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торое — сдаду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Чтобы паромы ходили не в убыток, перевозки придется субсидировать. Руковод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объединив усилия, разработают и внесут предложения», — подчеркнул Юрий Трутнев.

В каждом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жен появиться образцовый подъезд

Так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го с мэро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ем Надсадиным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 В прошлом 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ове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В регион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больше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и входных групп. Теперь идем дальше. Там, где чисто и опрятно, надо сделать еще и уютно. Может где-то картины повесить, которые рисуют дети, цветы в горшках поставить. Также продолжим поддерживать субсидией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инициатива должна идти от самих ж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ним из образцовых станет подъезд в доме № 22 на улице Пограничной. Такое желание изъяв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дноименного ТОС Анна Григорьева. Женщина рассказала о ряд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в доме, которых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властей.

— У нас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ели ремонт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в доме. Кроме того, мы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ем различны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гранты. В этом году, например,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оциальном проекте «Цветущий двор». Высадили много цвет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еще больше рассчитыва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расиво раскрасили часть фасада. Есть планы и на другую часть дома. В нашем доме много активных жителей, поэтому мы готовы делать свое жильё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тем более, ч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ддержка от властей,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ТОС.

В ходе объезд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и мэр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и и соблюдение стандарта содержа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дворов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который введен в регио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бразцовым сейчас считается сквер 135-ле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йоне улиц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Емельянова.

— Именно на примере этого сквера был разработан стандарт содерж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периодичность расчистки, обследования освещения, содержания растений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Мэрия здесь контролирует как стандарт, так и нормативность содержания территории. Здесь ж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нтролируют расчистку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реканий нет,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вгений Золотов.

— Мы обучили своих сотрудников на заводе им Федотова. Подготовили инструмент и малую механизированную технику. Договоры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крупногабаритной техники на период метелей тоже заключены. К сезону готовы. Активно пользуемся субсидиями на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и с радостью примем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образцовых подъезд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УК ООО «ЖЭУ 9» Людмила Литвина.

Еще одной точкой стал двор дома № 174 по улице Чехова. Здесь на днях жители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скользкую дорогу у подъездов. По словам мэра Сергея Надсадина,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оперативно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замечания и устранила причин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влекла 8 млрд инвестиций на развитие переработки мус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чнут строи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ТКО. В состав инвесторов проекта вошел Газпромбанк.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АО «Ситиматик» креди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трех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 обращению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концессио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сегодня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орон-участниц проекта.

Проектом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на юге острова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мощностью 152 тысячи тонн в год, в центре острова — Поронайске — мощностью 4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а также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 в Охе — мощностью 1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Предполагаемые инвестиции составят свыше 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вод объектов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2026 год. Проекты будут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синхронно. Срок концессии составит 25 лет.

Концессионерами проекта являются предприятия АО «Диджиталтех» — ООО «Ситиматик Сахалин Север», ООО «Ситиматик Сахалин Центр» и ООО «Ситиматик Сахалин Юг». Помимо участия в капитале предприятий, Газпромбанк выступит также в роли организатора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кредитора проектов. В качестве еще одной финансирую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упит ППК «Российск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оператор» (ППК «РЭО»).

— Этот проект делается для людей,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их жизни. Мы навели порядок на контейнерных площадках, установили удобные емк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для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Жители быстро привыкли к ним, отмечают, что это удобно. Но что касается полигонов, задача не была решена до конца. Сейчас мы занимаемся вопросом комплексно. Газпромбанк пришел инвестором в проект, мы пригласили компанию «Ситиматик» — это крупный игрок на рынке твердых отходов. Уверены, что они введут культуру в сфере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как в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Всё это поможет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и сохранить наши острова чисты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для нас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Мы участвуем в ряде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медицины в регионе. А как говорится, залогом здоровья является чистота. Поэтому подписание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в сфере переработки мусора — это не просто логическо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о и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в плане социальной значимо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остров чище, и мы будем всяческ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этому. Мы видим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самых разных отрасле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жителей, включ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Уверены, что опыт в этой области АО «Ситиматик», а также экспертиза и ресурсы реализующего стратегию созда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МЕГАИПРОКа Газпромбанка, позволят успешно и своевременно созд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мощности по обращению с ТК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жителей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егося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ы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Газпромбанка —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Газпромбанка Павел Бруссер.

— Партнерство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оздание устойчивой системы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ТКО),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сортировку 100% отходов и снижение объема отходов, направляемых на полиго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и объекта общей мощностью более 20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будут строи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ются на основе концессии, инвестиции в них оцениваются в 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РЭО готов вложить в проекты 6,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ЭО Денис Буцаев.

— Это важный для АО «Ситиматик» проект, реализация которого должна оказать существенное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Благодарны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шим партнерам — ППК «РЭО» и Газпромбанку — за доверие.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весь накопленный нами опыт и знания для планомерного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утем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современных объектов, отвечающих лучшим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АО «Ситиматик» Сергей Котляренко.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ал дорожную карту с Российским экологическим операторо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ектно-сме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и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планируется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снизить долю ТКО, подлежащих захоронению на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ж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писал концессио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по созданию объектов в сфере ТКО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компаний «ЭКОМИР-КУНАШИР» и «ЭКОМИР-ИТУРУП» Леонидом Пахмутовы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ими на Кунашире и Итуруп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ут созданы объекты обработки и утилизации крупногабаритных отходов и отход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ремонта, а также мусоросортировочные станции и станция с комплексом термического обезвреживания продуктов обработки ТК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인의 밥상, 사할린동포들의 사연이 담긴 밥상

8일(목)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사할린동포들의 사연이 담긴 밥상 '떠나면 귀향, 그림고 또 그림다.' 편이 방송되었다.

그리움은 흘러 몇 굽이, 역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세월, 고난 가득한 삶에도 생명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다, 이제 여기 묻히니부디 잊지 말기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사할린의 한인 묘지 위령비에 새겨진 글 중에서** -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최초의 공식 이민선이 떠난 지 올해로 120년 그 후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국을 강제로, 또 어쩔 수 없이 떠날리듯 떠나야 했고,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망향의 한을 달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 사할린 섬으로 끌려갔다 오지 않는 귀국선을 기다리며 무국적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4만여 명의 사할린동포들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해야 했던 고려인들까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긴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긴 밥상을 만나본다.

경기도 안산의 '고향마을' 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 단지는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에도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살아온 사할린동포들의 귀국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건 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적십자사가 함께 나섰고, 한·일 양국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4700여 명의 사할린동포들이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고 현재 약 2800여 명의 동포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다.

2000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약 480여 세대 720여 명의 사할린동포들이 살고 있는 '고향마을', 오랜만에 동대표들이 모여 마을 대정소를 하는 날, 열심히 가꾼 텃밭에서 상추는 물론 사할린에서 즐겨먹던 '빠뜨루쉬카(파슬리)'와 우크로프카(회향풀) 등 향채소가 듬뿍 들어간 사할린식 샐러드에 떡갈비처럼 고기를 다지고 속에 삶은 메추리알이나 달걀을 넣어 기름에 구운 카를레타(러시아식 돈가스)가 만들어진다.

오랜 세월 타국에서 살았지만 입맛은 여전히 한국식 그대로라는 사할린동포들. 장과 김치를 담아먹는 건 기본, 러시아 사람들에게겐 그저 잡풀인 고비, 쑥, 미나리 등 온갖 나물들을 뜯어다 말려두었다 먹고, 사료로 버려지던 오징어, 명태, 미역, 다시마 등 생선과 해조류까지 챙겨 먹는 한인들 덕분에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도 즐겨먹는 식재료들이 됐다. 굵고 부드러운 고비를 볶아서 상에 올리고, 오징어 몸통 안에 속을 채워 넣어 굽거나 찐 오징어순대가 만들어지면 그날이 잔치날. 고향 음식으로 그리움을 달래고, 절로 흘러나오는 도라지타령에 시름을 달래며 살아온 사할린동포들의 사연이 담긴 밥상을 만나본다.

쫄고 척박한 땅, 오랜 유배지였던 섬 사할린을 두고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는 '슬픔의 틈새'라고 했다. 그 낯선 땅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돌아오지 못한 채 긴 기다림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사할린동포들은 왜 남겨졌고, 돌아오지 못했을까?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위해 15만 명의 한인들을 강제동원했다.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사할린에도 탄광, 벌목, 철도, 도로 건설 등에 15만 명의 한인들이 강제동원됐다. 해방 후, 패전한 일본은 한인들을 방치한 채 자국민만 신고 떠나버렸고, 4만여 명의 한인들이 사할린에 남겨진다. 노동력이 필요했던 소련은 한인들의 귀향길

을 막았고, 분단과 전쟁으로 정신없던 조국은 사할린의 한인들을 잊고 말았다. 사할린의 코르사코브 항구에는 오지 않는 귀국선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한인들의 눈물이 흘러넘쳤다.

2012년 영주귀국한 최광호 어르신(97세)은 귀도 어둡고 기억도 가물거리지만, 1944년 강제로 끌려갔던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가 없다. 10시간이 넘는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나라 없는 설움 속에 모진 고생을 견뎌냈지만, 기록 한 장 남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온 건 빈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었다. 보리 한 줍에 삶은 메추리알과 머릿대를 넣고 지은 밥 한 그릇은 한 많은 긴 세월 잊혀지지 않는 음식이다.

경남 산청이 고향인 이경분(94세) 어르신도 열네 살에 아버지를 따라 사할린으로 떠났다 6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언젠가 돌아올거라 믿으며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오셨다. 탄광에서 힘들게 일하던 아버지를 위해 싸던 도시락에는 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 온몸이 쪼갬 얼어붙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돼지 내장 볶음에 술 한잔 해야 잠이 들곤 하셨다는 아버지와 청국장 띄워 끓여주시며 고향 애기를 입버릇처럼 하셨던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조국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살았다는 이경분 할머니의 긴 기다림의 사연까지, 역사의 비극을 온몸에 새기며 살아온 사할린동포 1세대의 한 많은 사연이 담긴 한 끼를 만나본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연해주와 사할린 등에 정착해 살고 있던 18만 명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쫓겨났다. 낯선 땅에 버려지듯 강제이주된 한인들은 황무지를 일구며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려인이라는 이름의 소수민족으로 살아왔다.

광주광역시 월곡동, 간판마다 러시아어가 적혀있는 이곳은 약 7천 명의 고려인들이 모여사는 곳이다. 대부분 새로운 일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해온 고려인 후손들. 고려인 마을의 살림꾼 신조야 씨 역시 강원도 영월에서 연해주로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의 후손이다.

평생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을 그리워했고, 2001년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다. 고려인들 사이 '한국 엄마'로 불리는 신조야씨는 고려인 마을 살림을 도맡아하는 살림꾼이자 요리사. 세대가 몇 번 바뀌는 동안, 언어도 잃고 입맛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부모의 나라인 한국이 자신의 뿌리라고 믿고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매일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내곤 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살면서도 늘 어머니가 담근 장과 김치를 먹고 살았다고, 잔치날이면 국수틀에 내린 면으로 국수를 말아먹곤 했다. 채썬 당근을 절여 새콤달콤 짭짤하게 무친 당근김치(마르크프차)는 고려인들의 소울푸드란다. 큼직하게 썬 고기와 채소를 쌀과 볶아 만드는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식인 기름밥(폴롭)까지,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온 고려인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밥상을 만나본다.

오랜 기다림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할린동포들, 하지만 아직도 기다림이 다 끝난 건 아니다. 인천 남동구 사할린센터에서 만난 문정현(84세) 회장에겐 아직 매듭짓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다. 아버지의 이중징용 피해, 태평양 전쟁 막바지 해상운송 경로가 막히자 사할린 탄광에서 일하던 한인들이 일본 본토로 강제징용되어 끌려갔고, 간신히 사할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살아가던 이들은 다시 한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문 회장의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다. 그렇게 사할린 땅에 남



[사진출처=KBS]

겨진 어머니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값싼 고기 통조림이 제일 요긴한 식재료였는데, 김치만 썰어넣어 넣고 끓인 수제비는 고마운 한 끼였다.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가자미로 담가 먹던 가자미식해도 요긴한 반찬이 되어주었다.

막걸리 넣고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에 고기와 채소를 다져 만든 소를 넣어 큼직하게 빚은 '빤세(고기전빵)'를 만들 때면 남녀노소 좋아하는 간식이 된다. 전빵 찌는 달큰한 냄새를 맡으면 사할린에 두고 온 자식 생각이 간절해진다.

고향가는 길이라면 속옷바람으로라도 뛰어가겠다던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고국으로 돌아와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는 사할린 동포들, 하지만, 두고 온 자식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2021년 사할린동포 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세대의 영주귀국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여전히 남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는 사할린동포들의 그리움이 가득 담긴 밥상을 만나본다.

〈한국인의 밥상〉 588회 '떠나면 귀향, 그림고 또 그림다' 편의 방송시간은 12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이다.

* 한국인의 밥상 기본정보 - 국민배우 최불암(나이-1940.6.15.)의 진행으로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문화 등을 아름다운 영상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매주 한편의 '푸드멘터리'로 꾸며내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이다. 공식영상, 회차정보 등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강사신문】

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들 한자리에 모인다

해외문화홍보원, 12월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코시스 한국문화 큰잔치' 개최외국인이 직접 만든 한국문화 콘텐츠 160점 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해외문화홍보원(KOCIS, 원장 김장호)은 올 한 해 한국을 세계에 알린 코리아넷 명예기자 122개국 4,834명과 한국문화 홍보활동가인 '케이 인플루언서(K-influencer)' 103개국 1,856명 등과 함께 12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2 코시스 한국문화 큰잔치(2022 K-wave Festival)'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youtube.com/@

GatewayToKorea)으로 생중계된다. 먼저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넷 우수 명예기자 10명과 '케이 인플루언서' 우수활동자 8개팀(9명)을 시상하고 격려한다.

코리아넷 우수 명예기자 부문에서는 옷감, 모자, 음악 등에 한국의 미를 표현한 세계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터뷰한 기사들로 영어권 최대 조회 수를 기록한 스리랑카인 미나스 아지스(Minnath Azeez) 씨 등이, '케이 인플루언서' 우수활동자 부문에서는 해동검도를

배워 대나무를 베는 것에 도전하는 영상을 제작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멕시코의 바네사 에르난데스 구스망(Vanessa Hernández Gusmão) 씨 등이 상을 받는다.

또한 올해 작품 46,000여 건을 접수한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Talk Talk Korea 2022)'의 8개 주제별 1등 수상자를 발표하고 수상작 160점을 전시한다. 8개 주제는 ▲세계 속의 한국(사진) ▲한국 그리기(웹툰) ▲한국 이야기(영상, 수필) ▲전통놀이(영상) ▲한글(웹

리그래피, 일러스트) ▲여행(일러스트, 영상, 사진) ▲뮤직비디오(영상) ▲한국음악(짧은 형식 영상) 등이다.

이번 큰잔치에서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다. 시상식 사이에는 이엑스아이디(EXID)의 멤버인 가수 솔지, 전통민요 전수자인 최은비 씨 등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쌍방향 문화교류 차원에서 주한 이집트대사관, 주한쿠웨이트대사관, 주한파키스탄대사관, 주한콜롬비아대사관,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등 5개국 주한대사관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관을 운영한다.

2023년 5월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

문자박물관도 미리 만나볼 수 있고 국립무형유산원의 나전 보석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코리아월드(Korea World)' 체험관에서는 미니 게임, 전통놀이, 케이팝 커버 댄스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태블릿PC, 문화상품권, 해문홍 기념품 등 푸짐한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별도의 입장권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방문 등록만 완료하면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행사 당일 순환버스(서울역, 사당역, 대화역 ↔ 킨텍스 제2전시장)도 운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토마토와 오이 가격 상승

지난 한 달간 사할린 상점들에서 채소와 과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과채류들의 가격이 4.7% 올랐다고 사할린 통계청이 전했다.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오이로 2022년 10월에 비해 29% 올랐으며, 토마토는 20.6%,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오렌지, 레몬, 배, 포도가 3.4% - 1% 올랐다.'고 보고했다.

기타 식품들 중에서 가격이 상승한 것은 다진 고기, 뼈에 붙은 쇠고기, 훈제 폴바사, 칠면조 고기, 생선, 새우, 통조림, 커피, 차, 기타 제과류가 1.1%-9.2% 올랐고, 조리용 소금은 한 달 만에 5.9% 올랐다.

동시에 보르쉬용 채소들 양배추와 당근, 양파와 비트는 7.6%-2.8% 가격이 낮아졌으며 사과와 가격도 2.3% 하락했다.

사할린주의 물가상승률은 12.25%(2021년11월-2022년11월)이다.

Помидоры и огурцы подорож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За прошедший месяц в сахалинских магазинах сильно подорожали овощи и фрукты. В целом плодоовощная продукция выросла в цене на 4,7%.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стате.

– Самый большой рост стоимости показали огурцы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октябрём 2022 года они подорожали на 29%. Помидоры выросли в цене на 20,6%. Фрукты – бананы, апельсины, лимоны, груши и виноград – от 3,4% до 1%, – рассказали в ведомстве.

Среди прочи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подорожали: фарш мясной, говядина на кости, колбаса полукопченая, мясо индейки, рыба, креветки, консервы, кофе и чай, различные сладости – на 1,1-9,2%. Поваренная соль подорожала за месяц на 5,9%.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дешевел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борщевой набор: белокочанная капуста, морковь, лук репчатый и свекла – от 7,6% до 2,8%. Также отмечено снижение стоимости яблок на 2,3%.

За год уровень инфляц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 12,25% (с ноября 2021 по ноябрь 2022 года).

사할린 주민 4명이 전화 사기꾼에게 5백만 루블리 이상을 사기당해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사할린 주민들을 계속 속이는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이 단번에 사기범들의 뒤통에 걸려 자발적으로 거금을 사기꾼들에게 송금하고 있다. 이번에 4명의 사할린 주민이 사기에 걸려든 가운데 경찰이 사기 사실에 따른 범죄 사건으로 기소했다.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 내무국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12월 9일(금) 익명의 사람이 36세의 사할린 남성에게 전화해 사기꾼들이 그의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통장에 든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 자금을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것이다. 피해 남성은 사기꾼을 믿고, 지시하는 대로 했다. 결과 피해 남성은 자신의 명의로 500만 루블리를 대출해 사기꾼의 은행 계좌로 370만 루블리를 송금했다.

같은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6세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익명의 사람이 속임수로 41만9천 루블리를 피해 남성에게서 훔쳤다는 것이다. 이 청년은 이른 아침 익명의 남성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동일한 사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안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피해 남성은 대출을 신청해 51만6천 루블리를 대출을 받아 사기꾼에게 송금했다. 주목할 것은 두 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이런 방식의 사기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어쨌든 사기꾼을 믿게 된 것이다.

또한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 내무국에서도 주민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광고 사이트에서 5만5천 루블리의 스노모빌 판매 광고를 보게 되었다.

남성은 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스노모빌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익명의 판매자는 5000루블리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피해 남성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스노의 모빌을 사기 위한 선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판매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사이트에서도 사라졌다.

이외에도 포로나이스크 지역 내무국에는 35세 여성 주민으로부터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11월 20일 이 여성은 전 러시아 청년센터의 직원 대표인 남성이 스포츠 강사로 일하는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치 시에서 선발된 훈련을 위한 특별 우대권을 지금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피해 여성은 이 제안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인을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러시아 청년센터 직원에게 전해주도록 했다.

잠시 후 그녀에게 익명의 남성이 전화를 걸어 그녀의 아이에 대한 우대권이 생겼으며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2만984 루블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12월5일에 그녀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지시한 대로 따랐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검찰이 모든 사기 갈취에 따른 범죄사건을 기소한 가운데 현재 전문가들이 범죄 가담자의 신원을 수사하는 중이다.

Четыре жителя Сахалина отдали телефонным мошенникам более 5 млн рублей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продолжают обманывать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итяне ведутся на одни и те же уловки мошенников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ереводят крупные суммы злоумышленникам. На этот раз, в руки мошенников попались четыре сахалинц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по фактам краж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УМВД России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в пятницу, 9 декабря, неизвестный позвонил 36-летнему сахалинцу и сообщил, что на его имя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хотят оформить креди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вои деньги, мужчине необходимо оформить на себя кредит, а все средства перевести на резервный счет. Тот поверил аферисту и выполнил все его указа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мужчина оформил на себя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сле чего перевел на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мошенника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в размере 3 700 000 рублей.

В этот же день в отделение полиции поступило заявление от 26-летнего жи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еизвестный путем обмана похитил у сахалинца 419 тысяч рубле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рассказал, что днем ранее ему позвонил незнакомец и по той же схеме обманул потерпевшего – «кредит – перевод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Так, потерпевший оформил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516 тысяч рублей и вс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перевел злоумышленнику.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оба пострадавших не раз слышали о таком виде мошенничества, однако поверили аферистам.

Также в ОМВД России п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у городскому округу, поступило заявление от местного жителя. Мужчина рассказал, что на сайте объявлений увидел пост о продаже снегохода стоимостью 55 тысяч рублей. Мужчина позвонил по указанному номеру и договорился о покупке техники. Однако псевдо-продавец предупредил об обязательной предоплате в размере 5 тысяч рублей. Потерпевший без капли сомнения внес предоплату за снегоход, но продавец перестал отвечать на звонки и вовсе исчез из сети.

Кроме того, в ОМВД России по Поронайскому городскому округу поступило заявление от 35-летней местной жительницы. Еще 20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на узнала от своего приятеля, работающего тренером, что ему позвонил мужчина,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центра молодежи и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субсидированные билеты для тренировочных сборов в город Сочи. Потерпевш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лась эт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и разрешила своему знакомому передать свои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злоумышленнику. Чуть позже ей позвонил тот самый неизвестный и сообщил, что для ее ребенка тоже появились льготные путевки, чтобы их приобрести ей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ести 20 984 рублей и, якобы, 5 декабря с ней свяжутся. Женщина выполнила все указания, однако абонент больше не выходил с ней на связь.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по всем фактам краж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пециалисты устанавливают лица, причастные к преступлениям.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Поздравляем!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т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т с юбилеем гл.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Хай Ок Дя!



Ольга Николаевна,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за плодотво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выставок, посвященных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дакции нашей газеты.

Жела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любви близких и душевного спокойствия!

회갑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